

#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배지

2024. 6. 12.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3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고린도 전서 1장 18절 -----

다 같이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 극복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이는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는 문제를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자신의 감정과 대입시켜 지나친 감정이 앞서는 사람의 경우 문제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헛된 미신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겨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두 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두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했던 반면, 좌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의 결과를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첫째, 죽음 대신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악을 행한 노예와 극악 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최고의 형벌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나무에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넘지 못할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으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사실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둘째, 형벌 대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을 상징할 뿐 아니라 형벌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처절하고 끔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장시간 극심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을 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그 시신을 날짐승에게 먹히게 하는 극악 무도한 처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상징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 온 것이 불안과 초조 그리고 정죄됨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불안해 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형벌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며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주 대신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형벌 받아야 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모두 해결하신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내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 같이**

- 1 당신이 생각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무엇인가요?
- 2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 중 보 기도

## 다 같 이

- 1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 2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 3 목사님의 한국 동정 기간 동안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금요일에 있을 물땀교회에서의 말씀 선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도록
- 4 큰빛은혜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나눠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는 교회가 되도록
- 5 베이 지역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 마 무 리 기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